

野 단일화 난관... 文 “문열렸다” 安 “안들어가”

안철수 “대선 끝까지 완주” 밝혀 변수는 지지율... 호남민심에 달려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25일 대선을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야권 후보 단일화를 놓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안 후보는 이날 저녁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공연장에서 열린 'PD수첩 방송 정상화를 위한 호프(HOPE) 콘서트'에 참석, 방송인 김미화 씨로부터 "(대선을) 끝까지 완주할 것인가, 중도에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받고 "제가 지난주 수요일(대선출마 기자회견 날)에 강을 건넜고, 건너온 다리를 불살랐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선 완주 의사를 넘어 경우에 따라,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도 건너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하는 등 대권에 대한 강한 의지가 반영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에서는 "단일화를 한다, 안 한다는 식으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의 발언은 국민이 바라는 정치 변화와 혁신을 위해 책임감을 갖고 나선 '국민대표'의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의 진정된 변화와 혁신, 국민의 동의라는 전제 조건은 변화가 없는 만큼 여전히 후보단일화의 문(門)은 열려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정권 창출을 위한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안 후보의 양보와 결단을 은근히 기대해왔던 민주당 진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문 후보와 안 후보의 후보단일화는 결국 지지율 향배에 달려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1월 후보 등록 시점까지 3차 대결에서 승산이 없는 구도가 형성된다면 두 후보 모두 정권 교체를 위한 후보단일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후보의 지지율이 반비일 경우에 여권조사나 경선을 통해 후보 단일화에 나서고 한 후보의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할 경우, 정치적 결단에 정치적 결단을 통한 '아름다운 양보'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여기에 야권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선점하는 쪽이 단일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쥐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호남은 지난 2002년 민주당 경선에서 영남 출신의 노무현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민중 진영의 고비 때마다 '전략적 선택'을 해왔다.

PK(부산·경남) 민심의 향배도 변수다. 새누리당의 정치적 뒷받침 영



광주 YWCA 서포터즈 “2030 투표 참시다”

광주 YWCA는 26일 오후 7시 광주 북구 유동 YWCA 3층 강당에서 대학생과 청년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030 투표참어 캠페인 서포터즈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투표참어 캠페인에 돌입했다. '2030 투표참어 서포터즈'는 이

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전남대학교와 조선대학교에 홍보 부스를 마련해 투표참어 캠페인을 벌이고, 10월부터 대선 투표일까지 SNS(소셜네트워크)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전남대

와 조선대 등 각 대학교에 만들어진 유권자 운동본부 중심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단과대 별로 서명 학생 수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남 민심의 지지 확보는 야권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여주는 가능자가 될 수 있다. 특히, 두 후보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점은 흥미를 더하고 있다.

역대 선거에서 실리적 투표 성향을 보이면서 당락을 결정하는 '스윙 보터' 역할을 했고, 유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40대의 지지 확보도 지지율 등락을 물론 후보 단일화의 향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20~30세대는 안 후보, 50~60세대는 문 후보를 야권 단일후보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미지 정치 달인 알렉산드로스 “난 헤라클레스” 초상 조각 배포



③ 카리스마(charisma)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한 나라를 이끌 어갈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우리가 가장 우선해야 하는 덕목은 무엇일까? 대중의 지지가 중요시되는 선거에서는 어쩌면 매체에 접한 후보의 '이미지'에 의해 선호도가 판가름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오래전 인물 평가의 기준이었던 '신언서판(身言書判)'의 전통은 아직도 유효하고, 시각적 욕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오늘날 더 대세다.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지도자로서 자신이 스스로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통제할 예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손꼽는다. 알렉산드로스는 세상에 어떤 인상을 남겨야 하는 지를 잘 알았던 인물이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초상조각을 그리스 출신의 최고 조각가인 리시포스에게 맡겼다.

작품 '헤라클레스 모습의 알렉산드로스 대왕'(BC 330년경)은 리시포스의 조각을 토대로 한 후대의 복제품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리시포스는 '감동적인 눈길'과 '사자 같기같은 머리카락' '다부진 목'을 통해 대왕의 카리스마를 정확하게 표현해냈다. 헤라클레스의 흉통을 잇는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을 돋보이게 하려는 장치로 헤라클레스를 나타내는 불멸의 지물인 사자의 머리 가죽을 뒤집어쓴 소년으로 묘사했다. 대왕은 동방원정을 나서면서도 그



리시포스 작 '헤라클레스 모습의 알렉산드로스 대왕'

리스의 화가, 조각가, 역사가 등을 동반해 초상조각을 남겼고, 그를 본 사람들은 열광했고 동시에 두려워했다.

알렉산드로스의 '카리스마'를 대중에게 전한 것은 예술의 힘이다. 내면을 이미지로 끌어내는 작가의 역량이 매력적으로 발휘됐을 때에만 이미지는 보는 이들과 공명할 수 있다. 이미지는 본질을 명료하게 드러내기도 하지만 때로 본질과 달리 '분칠' 수준에 그칠 때도 있다. 그래서 문제는 언제나 '본질'을 꿰뚫어 보는 눈이다.

로마 1000년의 저력에 매료되었던 '로마인 이야기'의 저자 시오노 나나미는 "그 기를 만든 지도자에게는 지적 능력, 설득력, 육체적 내구력, 자기 제어능력, 지속하는 의지가 요구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 나라를 이끌어가고 시대를 바꾸어가는 지도자를 가지려면 지도자를 보는 엄격한 우리의 눈이 필요할 것 같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심정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와 유력 대선후보 3인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무상보육 폐지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향후 새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원상복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6일 "5000억원 정도는 국회에서 충분히 증액할 수 있는 규모인데다 여야 이견이 없기에 증액에 큰 어려움이 없다"고 내다봤다.

관건은 정부가 끝까지 '무상보육

폐기'를 고수한다면 국회로서도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국가재정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이 보육예산을 놓고 무한대치하며 예산안 처리가 12월19일 대통령선거 이후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통령 당선자의 방침에 따라 정부가 보육예산 증액에 동의할 공산이 크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빛의 만평

- 김중두



안중에 없는 정치관

'0~2세 무상보육 폐지' 국회 예산심사 진통 클 듯

朴·文·安 모두 반대...대선 후 원상복귀 가능성

정부가 0~2세 무상보육을 폐지하는 내용의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국회의 새해 예산심사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유력한 대선 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모두 정부 방침에 일제히 반대입장을 밝혀 대선 이후 정부의 입장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소득하위 70% 가정에 대해서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침 등을 세우고 총 4

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보육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정치권이 요구하는 0~2세 무상보육을 위한 소요 예산에서 5000억원 가량 부족한 규모다.

무상보육은 여야가 4·11총선에서 일제히 내세운 공약이다. 당장 대선을 코앞에 두고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한 정치권에서는 보육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야권은 물론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정부 방침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논란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

일각에선 대선을 앞두고 당정 갈등을 넘어 자칫 당정 갈등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문자답변을 통해 "이 문제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약속한 대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조윤선 공동대변인이 전했다.

문 후보 측도 "무상보육 폐기는 무책임한 국정운영의 극치"라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를 요구했다.

안 후보도 "이래서 정치가 불신을 받고, 국민께서 정부를 믿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착잡한

www.photonicskorea.org

김대중컨벤션센터

2012.10.9(화)~10.11(목)

빛의 변화가 주는 우리 삶의 변화를 한눈에 조망하는 2012 국제 Light 비전엑스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2 국제광산업전시회 특징

- 동부라이텍, LGI노텍, 현대통신 등 국내외 150여개 광관련업체 참가
- Kita, Kotra, R&D특구 연계 미국, 러시아·CIS 및 일본 등 약 300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 LED조명활용 빛을 주제로 한 주제체험관 구성
- 주거공간 및 LED도로조명 공간 등 실생활 LED활용 테마관 구성
- 공공기관 및 건설사 구매담당자 초청 LED구매계획설명회 개최
- 건축물, 주거공간 및 주차장 LED조명 적용 기술 기준 세미나 개최
- 교육환경 및 박물관·미술관내 LED적용 특별 세미나 개최 및 전시관 구성
- 빛공해 세미나 개최 및 전시관 구성 (필룩스조명박물관)
- 러시아·CIS정부관계자, 독일투자진흥청, 중화방송 NTD텔레비전 참가 해외 LED 시장 진출 전략 세미나 개최
- LED제품디자인공모전 수상작 전시

참관신청 (사전등록)

국제광산업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한 참관신청



* LED 조명미켓 : 다양한 실생활 LED조명을 시중가 보다 저렴한 가격 판매

International Light Vision Expo 2012

2012 국제 Light 비전엑스포

정부정책 및 국제적인 트렌드인 저탄소·녹색성장에 맞추어, LED조명을 핵심 전시 아이템으로 국제광산업전시회가 국제 LIGHT 비전 엑스포로 개최됩니다.

주최



주관



특별후원

